일본의 후기중관파 연구

李 泰 昇

〈目 次〉

1. 序 言
2. 쥬냐나가르바
3. 샨타라크시타
4. 카말라실라
5. 하리바드라
6. 캄발라
7. 지타리
8. 아티샤
9. 기 타
10. 結 語

1. 序 言

1.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라는 테마에 있어서, 중관파 중 특히 후기중관파에 관한 일본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도에 있어 중관파의 전개는 일반적으로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어 그 역사적 전개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 ca.150-250)와 그 제자인 아르야데바(Āryadeva, 聖提婆 ca.170-270)에 의해 중관학파가 성립된 것이 초기중관파라 한다면, 나가르주나의『中論』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소위 자립논증파(Svatāntrika)와 귀류논증파(Prāsaṅgika)로 나뉘어지는 중기중관파, 그리고 불교교리의 전체계를 중관의 입장에서 정리하려고하는 쥬냐나가르바·샨타라크시타를 중심으로하

는 후기중관파가 그것이다. 본논문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후기중관파는 불교 역사상 瑜伽行中觀派라고도 불리어 왔으며, 특히 이 유가행중관파란 말은 그 정의를 둘러싸고 최근까지 일본 학자들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말이기도 하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필자도 고찰을 해본 적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후기중관파에 대한 연구를 가능한 한 집성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근년 출간된 『梵語佛典の研究3, 論書篇』(塚本啓祥外編, 平樂寺書店, 京都 1990. 이후『梵佛論』으로 약칭)의 「후기중관파」 항목을 다수 참조한 것을 밝히며, 먼저 후기중관파의 정의와 거기에 속하는 인물을 살펴보기로 한다.

* 유가행중관파와 관련한 후기중관파의 정의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 참조.

梶山雄一 「中觀思想の歷史と文獻」『講座大乘佛教7·中觀思想』 春秋社, 1982
松本史朗 「Jñānagarbhaの二諦說」『佛教學』5, 1978
「後期中觀派の空思想—瑜伽行中觀派について—」『理想』 No.610, 1984
「後期中觀思想の解明にむけて」『東洋學術研究』 25-2, 1986
一鄕正道 「ダルマキールティとシャーンタラクシタ」『佛教と異宗教』 平樂寺書店, 1985
「瑜伽行中觀派の思想」『佛教學セミナー』 45, 1987
李 泰 昇 「シャーンタラクシタの形象說批判について」『駒大佛教學部論集』 22, 1991
「『中觀莊嚴論』成立に關する一考察」『印佛研』 40-1, 1991
「『二諦分別論細疏』の作者について」『印佛研』 41-2, 1993
「後期中觀派의 定義에 대하여—瑜伽行中觀派에 관한 日本佛教學界의 論諍」『韓國佛教學』19호, 1994

1.2. 후기중관파의 사상적 특성 및 인물

일반적으로 샨타라크시타를 중심으로 하는 중관파를 후기중관파라 부르지만, 실제 샨타라크시타의 사상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쥬냐나가르바가 후기중관파의 開祖로 간주되고 있다. 이 쥬냐나가르바는 사상적으로

바바비베카(Bhāvaviveka, 淸弁 ca.500-570)와 샨타라크시타의 중간에 위치하여 샨타라크시타의 교학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후기중관파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 그 사상적 특성을 고찰해 보면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이란 그 주저 『中觀莊嚴論』에 의거한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후기중관파의 전개와 관련한 그 사상적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離一多性證因」에 의해 一切法無自性을 논증하는 것으로 知의 一인 성질과 형상의 多數인 성질간의 모순을 설하는 소위 形象論을 전개하고 있는 것.
(2) 불교의 모든 학파를 有部·經量部·唯識派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비판하면서 中觀의 입장을 最上에 두는 것.
(3) 유식의 이론도 有情을 윤회로 부터 해탈로 이끄는 방편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이러한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후기중관파에 속하는 인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 쥬냐나가르바(Jñānagarbha, 智藏, ca.700-760)
(2) 샨타라크시타(Śāntarakṣita, 寂護, ca.725-783)
(3) 카말라실라(Kamalaśīla, 蓮華戒, ca.740-797)
(4) 하리바드라(Haribhadra, 師子賢, ca.800)
(5) 캄발라(Kambala, 赤衣, 연대미상)
(6) 지타리(Jitāri, 10세기후반-11세기전반)
(7) 아티샤(Atiśa, ca.982-1054)
(8) 기타[슈리굽타(Śrīgupta, 8세기후반)등]

이상의 인물들을 일단 후기중관파에 속하는 인물로 꼽을 수 있지만 실제 후기중관파의 사상은 중관파만이 아니라 유가행파·불교논리학파 등과도 다수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반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의 보다 세밀한 연구를 기대하기로 하고 본논문에서는 상기 후기중관파에 속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각의 인물에 대한 생애와 저술를 중심으로 그 저술에 대한 일본의 연구성과를 가능한한 다

수 집성하기로 한다.

* 가지야마 박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후기중관파의 사상적 특색으로 간주한다.
(1) 나가르주나를 사상적 기준으로하는 것은 물론 그에 못지않게 다르마키르티 지식론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고 있는 점.
(2) 대부분의 학자가 자립논증파의 계보에 속하는 점.
(3) 유가행파와 대결하기보다도, 그 학설을 유부나 경량부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중관의 체계속에 흡수하려고 한 것, 즉 후기중관파는 유가행중관파라고도 할 수 있는 종합학파라는 점.

(梶山「中觀思想の歷史と文獻」p.18)

** 후기중관파에 속하는 인물로서 『梵佛論』은 샨티데바(Śāntideva, 寂天, ca.650-700)를 최초로 들고 있지만, 가지야마 박사의 「中觀思想の歷史と文獻」, 『インド佛敎人名辭典』(三枝充悳編)등에서 그를 중기중관파로 구분하는 까닭에 여기에서는 생략했다. 또 가지야마 박사가 들고있는 비무크티세나(Vimuktisena), 라트나카라샨티(Ratnākaraśānti)도, 다른 저술과 비교하여 명백히 후기중관파에는 속하지않는 까닭에 여기에서 제외했다. 라트나카라샨티가 유식파이었음을 밝히는 논문으로는 다음논문 참조.
松本史朗 「Ratnākaraśāntiの中觀派批判」(上)·(下) 『東洋學術研究』 19-1, 19-2;1980, 1980

2. 쥬냐나가르바

2.1. 생애 및 저술

2.1.1. 생애

쥬냐나가르바에 대해서는 티베트문헌에 의하면 적어도 3인의 쥬냐나가르바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1) 『二諦分別論』의 저자인 쥬냐나가르바, 2) 번역가로서의 쥬냐나가르바, 3) 마르파(Mar pa chos kyi blo gros 1012-1097)에게 구흐야사마자(Guhyasamāja, 秘密集會)를 가르쳤다고 하는 쥬냐나가르바의 3인이다. 여기에서 『이제분별론』은 824년에 성립되었다고 하는 『덴카르마 目錄』에 수록되어있는 까닭에 3)의 11세기의 쥬냐나가르바와는 구별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1)과 2)의 쥬냐나가르바가 동일인인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쥬냐나가르바의 『이제분별론』에 대한 샨타라크시타의 주석서 『二諦分別論細疏』의 티베트어 번역을 담당한 사람중의 한사람이 바로 쥬냐나가르바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쥬냐나가르바는 자신의 저서를 쓴 뒤에 티베트에 들어와 샨타라크시타의 주석서를 번역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더욱 어려운 문제는 2명의 쥬냐나가르바가 동시에 번역가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쥬냐나가르바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문제이며, 샨타라크시타의 스승으로 『이제분별론』을 남긴 쥬냐나가르바의 사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특히 티베트의 툼타문헌(Grub mtha', 宗義文獻이라고도 함)에 의하면 쥬냐나가르바는 經量中觀派·瑜伽行中觀派·世間極成中觀派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그의 사상이 쉽사리 파악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분별론』을 남긴 쥬냐나가르바는 샨타라크시타의 주석서에서도 볼 수 있듯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은 후기중관파 전체를 두고 볼 때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인의 쥬냐나가르바와 관련된 문제점은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拙稿 「『二諦分別論』에 있어서 유가행파 批判에 대하여」 『印度哲學』 3, 1993.

2.1.2. 저 술

쥬냐나가르바란 이름의 인물이 다수이듯 그 저술도 다양하지만 후기중관파의 선구적인 역활을 한 쥬냐나가르바에 한정시키면 다음과 같은 것이 그의 저술로 간주되어진다.

『二諦分別論頌』(Satyadvayavibhaṅga-kārikā;P.없음, D.No.3881)
『二諦分別論自疏』(Satyadvayavibhaṅga-vṛtti;P.없음, D.No.3882)*
『瑜伽修習道』(Yogabhāvanā-marga, P.No.5305,5452;D.No.3909,4538)
『聖無邊門成就陀羅尼釋偈』(Ārya-anantamukhanirahāradhāraṇī-vyākhyānakārikā, P.No.3519;D.No.2695)
『聖無邊門成就陀羅尼廣註』(Ārya-anantamukhanirahāradhāraṇī-vyākhyāna-ṭīkā, P.No.3520;D.No.2696)

*이 『二諦分別論自疏』를 일반적으로 『二諦分別論』이라 부른다.

2.2. 二諦分別論頌 및 自疏

쥬냐나가르바의 주저로 46게송과 자신의 註로 이루어져 있다. 저술의 명칭대로 나가르주나 이래의 이제설에 대한 異說을 비판하고 그 본래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작품으로, 그의 사상에는 바바비베카의 영향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다르마키르티의 직제자인 데벤드라붇디(Devendrabuddhi, ca. 630-690)의 설을 비판함으로서 二諦說에 관해 중관파의 입장에서 유가행파를 비판하고 있다. 이 저술은 티베트에서 샨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 카말라실라의 『中觀光明論』과 함께 〈東方自立派三論〉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역〕
長澤實導 「『二諦分別論』の研究」『大乘佛教瑜伽行思想の發展形態』智山勸學會, 1969(再錄, 『瑜伽行思想と密教の研究』大東出版社, 1978)
松下了宗 「ジュニャーナガルバの二諦分別論—和譯研究(上)—」『龍谷大學大學院紀要』5, 1983
「同(下)」『同』6, 1984

*티베트 교정본과 영역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M.D.Eckel, *Jñānagarbha's Commentary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ruths, An Eighth Century Handbook of the Madhyamaka Philosophy*, New York, SUNY Press, 1987

**『瑜伽行思想と密教の研究』의 내용

이 책은 크게 제1편:대승불교유가행사상의 발전형태, 제2편:유가행사상과 밀교의 연구의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편 속에서 쥬냐나가르바의 사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즉 제1편은 제1장:쥬냐나가르바의 저작과 연대, 제2장:쥬냐나가르바의 저작연구(『이제분별론』과『유가수습도』의 번역), 제3장:쥬냐나가르바의 인도불교사상의 위치의 3장으로 구성되어 쥬냐나가르바를 고찰하고 있으며, 또한 제2편의 제5장:유가행과 밀교의 연구에서도 쥬냐나가르바의 불교학 일반과 그의 밀교관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가사와의 번역 및 전체적인 논술에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쥬냐나가르바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으로 높이 평가되어도 좋지않을까 생각된다.

〔연구〕
江島惠教 「Bhāvaviveka研究—空性論證の論理を中心として—I」『東洋文化研究所紀要』51, 1970
「同—II」『同』54, 1971(改稿再錄:江島『中觀思想の展開』春秋社, 1980)
芳村修基 『インド大乘佛教思想研究』百華苑, 1974
松本史朗 「Jñānagarbhaの二諦說」『佛教學』5, 1978
「Jñānagarbhaの「世俗不生論」批判について」『駒大佛教學部論集』15, 1984
松下了宗 「ジュナーナガルバ(JG)の二諦分別論(一)—その著作態度—」『印佛研』32-1, 1983
「同(二)—世俗說をめぐって—」『印佛研』33-1, 1984
「Satyadvayavibhaṅgavṛtti研究をめぐる諸問題」『龍大佛教文化研究所紀要』23, 1984
森山清徹 「後期中觀派のダルマキールティ批判—因果論を巡って」『印佛研』37-1, 1988
「後期中觀派の學系とダルマキールティの因果論—Catuṣkotyutpādapratiṣedhahetu—」『佛教大學研究紀要』73, 1989
「後期中觀派の二諦說とpramāṇa」『印佛研』39-1, 1990.

2.3. 瑜伽修習道

이 저술은 『大日經』供養法에 보이는 菩提心에 관한 정형구의 해설과 보

리심의 수습을 설하는 작품으로, 나가르주나의 『菩提心釋』이나 카말라실라의 『菩提心修習』등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후기중관파의 실천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저술이라 생각된다.

〔일역〕

長澤實導 「『瑜伽修習道』の研究」『大乘佛教瑜伽行思想の發展形態』 智山勸學會, 1969(再錄, 『瑜伽行思想と密教の研究』大東出版社, 1978)

生井衛 「西藏文『瑜伽修習道』和譯」『佛教學會報』(高野山大學)2, 1969·11

〔연구〕

芳村修基 「瑜伽修習の系譜」『印佛研』8-2,1958
(改稿再錄:芳村『インド大乘佛教思想研究』百華苑, 1974)

賴富本宏 「菩提心覺え書」『密教學』10,1973

生井智紹 「佛道の體系と瑜伽の階梯 — 〈菩提心修習〉に關聯して—」『日本佛教學年報』54, 1989

2.4. 聖無邊門成就陀羅尼釋偈 및 廣註

후기중관파의 논사인 하리바드라는 그의 『現觀莊嚴明』에서 중요한 술어를 해석함에 있어 쥬냐나가르바의 이 저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나가키 히사오(稻垣久雄)에 의한 연구가 있다.

〔연구〕

H.Inagaki, Haribhadra's quotation from Jñānagarbha's Anantamukhanirhāradhāraṇītīkā, *Buddhist Thought and Asian Civilization, Essays in Honor of Herbert V.Guenther on his Sixtieth Birthday*, ed. by Leslie S. Kawamura and Keith Scott, Emeryville, Dharma Publishing, 1977

「Jñānagarbha's life and thought as seen in the Anantamukhanirhāradhāraṇītīkā」『中川記念論集』1983

The Anantamukhanirhāra-Dhāraṇī Sūtra and Jñānagarbha's Commentary A Study and the Tibetan Text, 永田文昌堂, 1987

3. 샨타라크시타

3.1. 생애 및 저술

3.1.1. 생애

샨타라크시타의 생애에 관해서는 티베트문헌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티베트에 초청되어 불교를 최초로 도입하는데 크게 공헌했기 때문이다. 티베트 문헌에 의하면, 티베트의 티송데첸(Khri srong lde brtsan;742-797)왕이 불교도입을 결의하여 세르낭(gSal snang, Ye shes dbang po로서도 알려짐)에 의해 당시 네팔에 체재하고 있던 샨타라크시타를 티베트로 초청했다고 전해진다(763)*. 이것이 샨타라크시타의 제1회 入藏으로, 티베트에 들어간 샨타라크시타는 룽축궁전에서 4개월간 十善·十八界·十二緣起의 법을 설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일어난 天災와 疫病등이 본(Bon)교도에 의해 불법의 신봉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공격을 받아 샨타라크시타는 하는 수 없이 네팔로 돌아가게 된다. 그후 예셰왕포에 의해 다시 티베트에 들어가(제2회 入藏, ca.771), 이번에는 본교도를 제압하기위해 파드마삼바바(Padmasaṃbhava)를 티베트에 부르도록 요청하여, 그에 따라 파드마삼바바가 티베트에 들어가(773) 본교를 제압하게 된다. 775년부터 삼에(bSam yas)寺院의 건설이 시작되어 샨타라크시타가 그것을 주도하고 파드마삼바바가 보좌했다고 한다. 779년 大本堂이 완성되었을 때 샨타라크시타는 나란다로부터 說一切有部의 계율을 지닌 12인을 초대하여 세르낭과 상시(Sang shi)를 포함한 티베트인 6명에게 샨타라크시타 스스로가 戒師가 되어 具足戒를 주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티베트에 최초의 승단이 성립하게 되고, 그후 범어, 한역불전등이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불교의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샨

타라크시타는 삼에 사원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다고 전해지며(ca.783), 그는 유언으로서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대립을 예언하여 그때에는 자신의 제자인 카말라실라를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초기 티베트 불교의 연대에 대해서는 다음논문 참조.
山口瑞鳳「吐蕃王國佛教史年代表」『成田山佛教研究所紀要』3, 1978

3.1.2. 저술

샨타라크시타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술이 남아있다.

『攝眞實論頌』(Tattvasaṃgraha-kārika, P.No.5764;D.No.4266)
『中觀莊嚴論頌』(Madhyamakālaṃkāra-kārika, P.No.5284;D.No.3884)
『中觀莊嚴論自疏』(Madhyamakālaṃkāra-vṛtti, P.No.5285;D.No.3885)*
『二諦分別論細疏』(Satyadvayavibhaṅga-pañjikā,P.No.5283;D.No.3883)
『諍正理論註細說義』(Vādanyāyavṛtti-vipañcitārthā,P.No.5725,5738;D. No.4239)
『律儀二十論註』(Saṃvaraviṃśaka-vṛtti, P.No.5583 D.No.4082)

*이 『中觀莊嚴論自疏』를 일반적으로 『中觀莊嚴論』이라 부른다.

이외에도 『眞實成就論』(Tattvasiddhi, P.No.4531 D.No.3708)등과 같은 밀교논서도 남아있지만, 그의 저술인지에 대해서는 논난이 있다.*

*山口瑞鳳 『チベット 下』東京大學出版會,1988 p.206 참조

3.2. 攝眞實論頌

이 저술은 티베트 대장경 중「因明部」에 속해있으며, 전 26장(티베트역은 31장)으로 카말라실라의 주석이 남아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특히 7-8세기 인도사상을 알기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헌으로, 샨타라크시타는 불교의 입장에서 거의 모든 인도사상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의 主著인 『중관장엄론』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 책에서는 그의 완

전한 사상이 서술되어 있지 않고, 다르마키르티의 論理學과 認識論을 중심으로 한 타학파에 대한 일종의 비판서로서, 다르마키르티 연구의 입문서적인 역할도 겸하고 있다. 불교사상에 관해서는 有無의 形象이 부정된 최상의 단계로서 唯識性을 증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책은 주저인 『중관장엄론』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비판적 대상으로 망라된 全인도사상은 당시의 사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문헌적 역할을 하며, 또한 일찍이 산스크리트본이 발견됨에 따라 여러학자들에 의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스크리트본〕

E. Krishnamacharya, *Tattvasaṅgraha of Śāntarakṣita with the Commentary of Kamalaśīla*, 2 vols.,Gaekwad's Oriental Series XXX:XXXI, Baroda, 1926

S.D. Shastri, *Tattvasaṅgraha of ācārya Shāntarakṣita with the Commentary Pañjikā of Shrī Kamalashīla*, 2 vols.,Bauddha Bharati Series 1, Varanasi, 1968

〔각 章별 연구〕

序章

渡邊照宏「攝眞實論序章の飜譯研究」『東洋大學東洋學研究』2, 1967

제1장 Prakṛti-parīkṣā

今西順吉「根本原質의 考察—タットウアサングラハ第一章譯註—」『北大文紀要』XX-2, 1972

本多 惠 「『タットウアサングラハ』のサーンキヤ說」『平川還曆記念論文集』1975
『サーンキヤ哲學研究 上』春秋社, 1980

中田直道「眞理綱要およびその註釋書にあらわれたサーンキヤ學派の根本質料因について」『鶴見大學紀要』7·8·9·10·11,1974

제2장 Īśvara-parīkṣā

渡邊重朗「佛教論理學派の破神論 — シュバグプタとシャーンタラクシタの場合」『玉城記念論集』1977

木村俊彦「正理·勝論學派の有神論に對する佛教論理學派の批判(二) — シャーンタラクシタにおける—」『宗教研究』46-2(213), 1973

木村誠司「後期佛教における有神論批判について」『駒大佛教學部論集』15, 1984

제3장 Ubhaya-parīkṣā
本多 惠『サーンキヤ哲學研究 上』春秋社, 1980

제4장 Svābhāvikajagadvāda-parīkṣā

제5장 Śabdabrahma-parīkṣā
中村 元『ことばの形而上學』岩波書店, 1956(增補版1981)

제6장 Puruṣa-parīkṣā
中村 元『初期のウェーダーンタ哲學』岩波書店, 1950(增補版1981)

제7장 Ātma-parīkṣā
(1) Naiyāyika-Vaiśeṣikaparikalpitātma-parīkṣā
龍山章眞「「實義要集·我論批判」の研究—正理派·勝論派の章—」『日佛年報』9, 1937
內藤昭文「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說批判(III)—ニャーヤ·ウァイシェーシカ學派の構想するアートマン說をめぐって(1)Pūrvapakṣa」『龍大院紀要』6, 1985
「寂護·蓮華戒の無我說擁護の立場—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說批判(III)—(2)として」『佛教學研究』42, 1986
「寂護·蓮華戒のアートマン存在論證批判—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說批判(III)—(3)として」『南都佛教』57, 1987
田丸俊昭「想起(pratisandhana)とアートマン廻る論爭—Tattvasaṃgraha 7-1, Naiyāyika-Vaiśeṣikaparikalpitātmaparīkṣāの一節—」『龍大佛文紀要』18, 1979
(2) Mimāṃsakaparikalpitātma-parīkṣā
金岡秀友「我と覺を廻る論爭 — Tattvasaṃgraha, Mimāṃsakaparika=lpitātma-nirākaraṇa」『宗教研究』169, 1961
服部正明「眞理綱要における我論批判—ミーマーンサー,サーンキャの想定する我の考察」(中村 元編『自我と無我—インド思想と佛教の根本問題』平樂寺書店, 1963)
內藤昭文「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說批判(IV)—ミーマーンサー學派の構想するアトマン說をめぐって(1)—」『印佛研』35-1, 1986.
「無我說をめぐる寂護·蓮華戒とクマーリラの論爭点— 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說批判(IV)—(2)—」『龍大院紀要·人文科學』8,1987
「クマーリラのアートマン說の理論「區別と隨伴」への批判— 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說批判(IV)—(3)として—」『佛教學研究』44,1988
「TSPにおける影像說の-斷面-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說批判(IV)-(4)として」『印佛研』37-1, 1988.

(3) Kāpilaparikalpitātma-parīkṣā
服部正明, 前揭論文
本多 惠『サーンキヤ哲學研究 上』春秋社, 1980
內藤昭文「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說批判(I)—サーンキャ學派の構想するアートマン說をめぐって(1)—」『印佛研』31-2, 1983
「同 (I)-(2)」『印佛研』32-1, 1983
「同 (I)-(3)」『龍大院紀要』5, 1983
(4) Digambaraparikalpitātma-parīkṣā
田丸俊昭「實體と樣態—Tattvasaṃgraha 7-4—」『印佛研』26-2,1978
「佛教論理學派における數等の區別の說明—Tattvasaṃgraha, K.323&pañjikā—」『印佛研』27-1, 1978
「Śāntarakṣita及びKamalaśīlaのJaina批判—Tattvasaṃgraha, 7章第4節—」『龍大院紀要』1, 1979
(5) Aupaniṣadakalpitātma-parīkṣā
中村 元『初期のウェーダーンタ哲學』岩波書店, 1950(增補版1981)
Nakamura, Hajime:A note on pre-Śaṅkara Vedānta Philosophy —the Vedāntic portions of the Tattvasaṃgraha by Śāntirakṣita—『大倉山學院紀要』1, 1954
(6) Vātsīputrīyaparikalpitātma-parīkṣā
長澤實導「『タットウアサングラハ』に於ける補特伽羅說の批判」『佛教研究』3-3,1939(『瑜伽行思想と密教の研究』大東出版社, 1978 再錄)
內藤昭文「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說批判(II)—プドガラ說をめぐって(2)—」『佛教學研究』41, 1985

제8장 Sthirabhāva-parīkṣā
御牧克己「恒常性批判Sthirasiddhidūṣaṇa—Ratnakīrti:Sthirasiddi-dūṣaṇaとTS(P):Sthirabhāvaparīkṣāの比較—」『印佛研』20-2, 1972
「VināśitvānumānaとSthirasiddhidūṣaṇa」『印佛研』21-2, 1973

제9장 Karmaphalasaṃbandha-parīkṣā

清水公庸「因果をめぐる論爭 TSP "Karmaphalasaṃbandhaparīkṣā"試譯」『南都佛教』51, 1983

제10장 Dravyapadārtha-parīkṣā

菱田邦男「Tattvasaṃgrahaにおけるマナス批判」『印佛研』21-2, 1973
「Tattvasaṃgraha 和譯解說(1);(2)」『名古屋商科大學論集』14, 1970;15,1971
「同(3);(4);(5)」『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人文·社會科編) 23, 1974; 24, 1975;26, 1977
「Tattvasaṃgrahaにおけるākāśa批判」『印佛研』27-2, 1979
「Tattvasaṃgrahaにおける時間方角批判」『印佛研』31-1, 1982
「Tattvasaṃgrahaにおける有分·部分批判」『東海佛教』28, 1983

제11장 Guṇapadārtha-parīkṣā

菱田邦男「個別性(pṛthaktva)批判について」『東海佛教』16, 1971
「タットウァサングラハにおけるサンスカーラ批判について」『日本佛教學會年報』40, 1975
「Tattvasaṃgrahaにおける分量批判」『印佛研』29-1, 1980
「Tattvasaṃgraha 和譯解說(6)」『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人文·社會科學編) 30, 1981
「同(7)」『東海佛教』26, 1981
「同(8);(9)」『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人文·社會科學編)31,1982; 32, 1983

제12장 Karmapadārtha-parīkṣā

菱田邦男「Tattvasaṃgrahaにおける運動批判」『印佛研』24-1, 1975
桑月 心「Tattvasaṃgrahaにおける運動句義批判」『龍大院紀要』4,1983

제13장 Sāmānyapadārtha-parīkṣā

Hishida, Kunio:On "sāmānya" introduced in the Tattvasaṃgraha, 『印佛研』25-1, 1976

제14장 Viśeṣapadārtha-parīkṣā

菱田邦男「タットウァサングラハにおける勝論說批判—ウィシェーシャの章について」『東海佛教』9·10, 1964

제15장 Samavāyapadārtha-parīkṣā

菱田邦男「Tattvasaṃgrahaのsamavāya批判について」『印佛研』15-1, 1967
「Tattvasaṃgrahaにおける合批判」『印佛研』22-1, 1973

제16장 Śabdārtha-parīkṣā

伊原照蓮「タットブサムグラハに於けるアポーハ說について」『文化』15-1, 1951
太田心海「「ことば」の對象について—Tattvasamgraha, Sabdarthapa-rīkṣā管見」『佐賀龍谷短期大學紀要』28·29, 1973
「法稱と寂護のアポーハ說」『印佛研』24-2, 1976
小林信彦「Tattvasaṃgrahaに批判されるBrahmaの意味論」『インド學試論集』6-7, 1965
全 致洙「Tattvasaṃgrahaのアポーハ說における sāmānādhikaraṇyaの議論」『印佛研』35-2, 1987

제17장 Pratyakṣalakṣaṇa-parīkṣā

服部正明「『眞理綱要』の直接知覺(Pratyakṣa)論」『日佛年報』25, 1959

제18장 Anumāna-parīkṣā

泰本 融「五分作法の一考察—シャーンタラクシタの反論をめぐって」『印佛研』9-1, 1961

제19장 Pramāṇāntara-parīkṣā

島 義德「Śāntarakṣitaのabhāva 批判」『印佛研』30-2, 1982

제20장 Syādvāda-parīkṣā

제21장 Traikālya-parīkṣā

菅沼 晃「Tattvasaṃgrahaにおける三世實有批判について」『印佛研』8-2, 1960
「寂護の三世實有批判論 —Tattvasaṃgraha, Traikālyaparīkṣā—」『東洋大學大學院紀要』1, 1964
佐佐木現順『佛教における時間論の研究』淸水弘文堂, 1974(附錄—實義要集釋—三時分析章釋解)
生井 衛「Tattvasaṃgrahaにおける前世の論證」『印佛研』25-2, 1977

제22장 Lokāyata-parīkṣā

宮坂宥勝「シャーンタラクシタの傳える唯物論哲學—Tattvasaṃgrahapañjikā. Chap.XXII を中心として」『密教文化』71·72, 1965

生井智紹 「TSにおける〈心身〉の問題:後期佛教徒によるBārhaspatya批判〔VI-2〕」『密教文化』157, 1987

제23장 Bahirartha-parīkṣā

菅沼 晃 「攝眞實論における識說について」『宗教研究』35-2(170), 1960

「The Examination of the external object in the Tattvasaṃgraha」『印佛研』10-2, 1962

「On self-cognition(svasaṃvedana) in the Tattvasaṃgraha」『印佛研』11-2, 1963

「Śāntarakṣita's criticism on the paramāṇuvāda in the Tattvasaṃgraha」『印佛研』12-2, 1964

「攝眞實論外境批判章における佛智の問題」『宗教研究』176, 1963

「寂護の識論」『東洋大學紀要文學部編』18, 1964

「寂護の外境批判について」『印佛研』13-2, 1965

「『攝眞實論』外境批判章譯註(一)」『勝又記念論集』1981

「同(二)」『壬生記念論集』1985

太田心海「認識の對象に關する考察—Tattvasamgraha, Bahirarthaparīkṣāの和譯研究(上):(下)」『佐賀龍谷學會紀要』14,1968:17,1970

栗原尙道「Tattvasaṃgraha, Bahirarthaparīkṣāにあらわれる形象虛僞論について-Sarvajñaと Cittāntara-」『印佛研』42-2, 1994.

제24장 Śruti-parīkṣā

大前 太 「TattvasaṃgrahaにおけるVedāpauruṣeyatva(Vedaの非人爲性)批判」『印佛研』34-2, 1986.

제25장 Svataḥprāmāṇyavāda-parīkṣā

제26장 Atīndriyadarśipuruṣa-parīkṣā

川崎信定「Tattvasaṃgrahaに引用されたSarvajña 批判說」『印佛研』11-2, 1963

「法を知る人は存在するか—Tattvasaṃgrahaにおける佛教·ミーマーンサー學派の論爭」『平川還曆記念』1975

木村誠司「Tattvasaṃgrahaにおける sarvajña 論爭」『駒大大學院佛教學研究會年報』16, 1983

渡邊重朗 「TATTVASAṂGRAHA XXVI kk 3247-3261 et kk 3622-3646」『佛教思想史論集II』1988

*일본어에 의한『攝眞實論』의 완역은 없지만, 영역에 의한 완역은 다음의 것이 있다.

Ganganatha Jha, *The Tattvasaṁgraha of Shāntarakṣita with the commentary of Kamalashīla*, 2 vols., Gaekwad's Oriental Series LXXX:LXXXIII, Baroda, 1937:1939 (repr. Delhi, 1986)

3.3. 二諦分別論細疏

쥬냐나가르바의『이제분별론』에 대한 샨타라크시타의 주석으로, 샨타라크시타의 사상 형성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저술이다. 즉 샨타라크시타의 사상 형성에 쥬냐나가르바의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저술로, 이 저술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않다. 아마도『중관장엄론』의 저자와『이제분별론세소』의 저자를 다른사람으로 간주한 총카파(Tsong kha pa)의 견해가 이 저술에 대한 연구를 늦추게 한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되지만, 이 두 저술은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또한 중관파와 유가행파의 二諦說에 대한 논쟁이 쥬냐나가르바 이후 샨타라크시타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중요한 문헌이다. 이 저술은 필자의 학위 논문 테마이기도 하다.

〔일역〕

李 泰昇,『二諦分別論細疏』の研究, 駒澤大學博士學位論文, 1993

*『二諦分別論細疏』の研究의 내용

본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으로 다음의 3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연구:『이제분별론세소』를 중심으로 한 후기중관사상의 전개에 대하여

제2부. 번역:『이제분별론』과『이제분별론세소』

제3부.『이제분별론세소』의 티베트 텍스트

부록.1)중관장엄론 科文 2)어휘 3)참고문헌

〔연구〕

松本史朗「佛教論理學派の二諦說」(上)·(中)·(下)『南都佛教』45·46·47;1980 1981, 1981
松下了宗「Satyadvayavibhaṅgavṛtti研究をめぐる諸問題」『龍大佛教文化研究所紀要』23, 1984
李 泰昇「『二諦分別論細疏』の作者について」『印佛研』41-2, 1993
「『二諦分別論細疏』と『中觀莊嚴論』」『印佛研』43-2, 1995

3.4. 中觀莊嚴論頌 및 自疏

후기중관파의 사상적 특성을 나타내보이는 샨타라크시타의 主著로서, 97게송과 자신의 註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샨타라크시타 자신의 二諦說을 설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勝義의 입장에서 샨타라크시타 독자의 「離一多性證因」을 통한 一切法無自性의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유부, 경량부, 유가행파를 차례로 비판해 가며 중관을 최우위에 두고 있다. 世俗에 대해서는 쥬냐나가르바와 깊은 관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속의 정의와 관련해 다르마키르티의 용어도 쓰여지고 있다. 이 저술이 후대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며, 샨타라크시타가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장본인인 까닭에 티베트에서도 크게 중시 연구되고 있다.

〔일역〕

一郷 正道「『中觀莊嚴論』の和譯研究(1)」『京都産業大學論集』2-1, 1972
「『中觀莊嚴論』の和譯研究(2)」『密教學』9, 1972
「空觀と解脫—『中觀莊嚴論』第67-90偈の研究—」『佛教思想8-解脫』平樂寺書店, 1982
『中觀莊嚴論の研究』文榮堂, 1985

*『中觀莊嚴論の研究』의 주요내용

이 책은 이치고씨의 연구논문과 번역을 수록한 『중관장엄론의 연구』와 영문 해설과 티베트 택스트를 담은 『MADHYAMAKĀLAMKĀRA』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츠모토 시로의 서평을 겸한 논문(「후기중관사상의 해명을 위하여」)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 책의 출간으로 인해 일본에서의 후기중관파 연구는 한 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중관장엄론의 연구』에는 1)저작목적에 관한 샨타라크시타, 카말라실라의 견해에 대하여, 2)극미설 비판, 3)샨타라크시타의 외계실재론 비판, 4)샨타라크시타의 유식비판, 5)슈바굽타와 샨타라크시타, 6)샨타라크시타의 해탈론 등 6편의 논문이 실려있으며, 티베트 택스트로서는 샨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 외에 카말라실라의 『중관장엄론세소』의 티베트 택스트도 동시에 로마나이즈되어 있다. 아울러 게송에 대한 영역도 이루어 지고 있다.

〔연구〕

上山大峻「シャーンラタクシタの教學的特質—『中觀莊嚴論』における教示方法について」『印佛研』8-2, 1960
「シャーンラタクシタの二諦說」『印佛研』9-2, 1961
「瑜伽行中觀派における唯識說について」『印佛研』10-2, 1962
山口 益「中觀莊嚴論の解讀序說」『干潟博士古稀記念論文集』1964
梶山雄一「佛教における瞑想と哲學」『哲學研究』512, 1969
「シャーンラタクシタの批判哲學」『佛教の比較思想論的研究』1979
Yuichi Kajiyama:Later Mādhyamikas on Epistemology and Meditation, *Mahāyāna Buddhist Meditation*, ed. by M. Kiyota, Honolulu, The Univ. Press of Hawaii, 1978
小山一行「中觀莊嚴論の識論批判」『印佛研』25-2, 1977
一郷正道「瑜伽行中觀派」『講座大乘佛教7·中觀思想』春秋社, 1982
松本史朗「後期中觀派の空思想—瑜伽行中觀派について—」『理想』No.610, 1984
「後期中觀思想の解明に向けて— 一郷正道氏『中觀莊嚴論の研究』を中心に—」『東洋學術研究』25-2, 1986
小林 守「『中觀莊嚴論』にみられる形象眞實說」『印佛研』33-1, 1984
「形象眞實〈一卵半塊〉說について」『印佛研』36-2, 1988
「『中觀莊嚴論』とその注釋書をめぐる二,三の問題」『佛教學』26,1989
福田洋一「一卵半塊論とはなにか」『日本西藏學會會報』33, 1987
山口瑞鳳「シャーンラタクシタの中觀」『成田山佛教研究所紀要』11-1, 1988
「日本に傳わらなかった中觀哲學—觀念論「相依性」の排除」『思想』1991, 4
「「緣起生」の復權—寂護による清弁·法稱の刹那滅論批判」『成田山佛

教研究所紀要』14, 1991
森山清徹「後期中觀派と形象眞實論·形象虛僞論—Śākyabuddhi, Prajñākaragupta, Kambala-」『印佛研』41-1, 1992
「後期中觀派と形象眞實論及び形象虛僞論-形象(ākāra)と三性說」『印佛研』42-1, 1993
李 泰昇「『中觀莊嚴論』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印佛研』40-1, 1991
「Dar ma rin chenの『中觀莊嚴論備忘錄』について」『韓國佛教學SEMINAR』5, 1993

3.5. 기타 샨타라크시타의 저작

이상의 저술외에도 샨타라크시타에게는 『諍正理註細說義』『律儀二十註』등과 같은 저술이 남아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쟁정리주세설의』는 다르마키르티의 『諍正理論』에 대한 주석으로 다르마키르티와의 관계를 보이는 좋은 예라 생각되지만, 실제 연구는 거의 없다. 『율의이십주』도 샨타라크시타의 계율관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의 연구가 요망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밀교부에 속하는 저술로서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몇몇 작품이 샨타라크시타의 저술로 거론되고 있다.

4. 카말라실라

4.1. 생애 및 저술

4.1.1. 생애

카말라실라는 티베트불교 初專期의 대사건인 「삼에의 宗論」에 있어 중국의 禪僧 摩訶衍과 대론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장차 티베트에 인도불교와 중국불교가 대립할 것으로 그때는 자신의 제자인 카말라실라를 부

르라」고 한 샨타라크시타의 遺言에서도 알 수 있듯 샨타라크시타의 철저한 신임을 얻고있던 제자로서, 그가 「삼에의 종론」에서 마하연을 굴복시킴으로서 티베트불교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절대적인 역활을 하고 있다. 이 「삼에의 종론」이 대사건이었던 만큼 티베트에 있어 카말라실라의 行蹟은 꽤 상세히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인도에서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는 것이 없다. 단지 카말라실라가 샨타라크시타의 다수의 저술에 주석을 붙이고 있는 점과 샨타라크시타의 유언등을 통해, 카말라실라는 샨타라크시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으로 구체적인 점에 대해서는 不明인 것이 많다. 하지만 티베트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가 티송데첸 왕때(742~797)에 티베트에 들어와(794), 그 왕의 入會하에 삼에의 대승원에서 중국의 마하연과 대론하여 마하연을 굴복시켰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不思不觀」의 선을 닦으면 곧바로 불성이 현현하여 성불하므로 六波羅蜜 등의 善行을 구태여 닦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마하연의 설에 대해 「불사불관」이란 기절의 상태와 같은 것으로, 또 그것은 空性의 知마저도 버린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 요구되는 無分別智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체법은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성의 지를 수습함으로서 비로서 얻어지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대론의 결과 마하연을 굴복시켜, 마하연은 티베트를 떠날 수 밖에 없었지만, 카말라실라는 티송데첸왕의 죽음과 전후한 시기에 마하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되어졌다고 하고 있다. 이 「삼에의 종론」과 관련한 카말라실라의 사상은 그의 『수습차제』를 통해 엿볼 수 있지만, 그의 또 다른 저술인 『중관광명론』은 실제 후기중관파의 3대저술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같이 카말라실라는 티베트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후기중관파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1.2. 저술

카말라실라의 저술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즉 因明에 관한것과, 般若經의 주석에 관한 것, 中觀에 관한 것, 修道論에 관한 것이다.

(1) 인명에 관한 것.

『攝眞實論細疏』(Tattvasaṃgraha-pañjikā, P.No.5765;D.No.4267)

『正理一滴論前品綱要』(Nyāyabindupūrvapakṣa-saṃkṣipti,P.No.5731; D.No.4232)

(2) 반야경 주석에 관한 것.

『聖般若波羅蜜多七百頌註疏』(Āryasaptaśatikāprajñāpāramitā-ṭīkā, P.No.5215;D.No.3815)

『聖能斷金剛般若經註疏』(Ārya-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ṭīkā, P.No.5216;D.No.3817)

『般若心經註疏』(Prajñāpāramitāhṛdaya-nāma-ṭīkā, P.No.5221;D.없음)

『聖入無分別陀羅尼註疏』(Āryāvikalpapraveśadhāraṇī-ṭīkā, P.No.5501; D.No.4000)

『聖稻芊經註疏』(Āryaśālistambaka-ṭīkā, P.No.5502;D.No.4001)

(3) 중관에 관한 것.

『中觀莊嚴論細疏』(Madhyamakālaṃkāra-pañjikā,P.No.5286;D.No.3886)

『中觀光明論』(Madhayamakāloka, P.No.5287;D.No.3887)

『眞實光明論』(Tattvāloka-nāma-prakaraṇa, P.No.5288;D.No.3888)

『一切法無自性論證論』(Sarvadharmāsvabhāvasiddhi,P.No.5289;D.No. 3889)

(4) 수도론에 관한 것.

『菩提心修習』(Bodhicittabhāvanā, D.No.3913 〔한역〕菩提心觀釋, T.No. 1663)

『入瑜伽修習論』(Yogabhāvanāvatāra, P.No.5313, D.No.3918)

『修習次第』(Bhāvanākrama, 『初篇』 P.No.5310, D.No.3915,〔한역〕廣釋菩提心論, T.No.1664;『中篇』 P.No.5311, D.No.3916 ;『後篇』 P.No.5312, D.No.3917)

4.2. 修習次第

이 저술은 중관의 수도론인 漸悟의 입장에서 요가행자가 실천해야할 수습의 과정을 해설한 3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져있다. 초편은 聞思修의 3慧에 의해 확립되어야 할 一切法無我의 가르침과 그 내용이, 중편은 그 가르침의 수습방법, 후편은 그 수습의 果報등이 설명되고 있다. 이 저술은 〈삼에의 종론〉이후 티베트왕의 요청에 의해 티베트에서 저술되었다고 한다.

〔일역〕

芳村修基『インド大乘佛教思想研究—カマラシ-ラの思想—』百華苑, 1974

*『インド大乘佛教思想研究』의 내용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제1편:삼에(bSam yas) 논의와 카말라실라의 사상, 제2편:티베트 불교자료의 2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연구와 내용은 제1편에서 다루어 지고 있지만, 제2편에는 덴카르마 목록에 대한 정리등 귀중한 자료가 실려 있다. 제1편은 전체 6부로 구성되어 삼에종론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6부는 다음과 같다. 즉 제1부:역사적 검토, 제2부:사상의 문제, 제3부:카말라실라의 수습차제·역주, 제4부:광석보리심론, 제5부:삼에 제1비문의 교의와 연대, 제6부:부톤의 티베트 불교사이다. 이 제1편의 내용에서 보듯 카말라실라의 『수습차제』에 대한 번역 및 『광석보리심론』과의 대조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제1부에서는 카말라실라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쥬냐나가르바의 『二諦分別論頌』 및 청변의 『中觀義綱要』등에 대해서도 고찰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카말라실라의 사상 뿐만아니라 후기중관파 일반 및 티베트불교 전체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芳村修基「カマラシ-ラの修習次第」『佛教學研究』8·9, 1953

立花孝全「大悲の考察—Bhāvanākramaを中心として」『印佛研』13-2, 1965

「カマラシ-ラにおける大悲觀」『中村元博士還曆記念論集, インド思想と佛教』春秋社, 1973

「カマラシ-ラにおける大悲觀(二)—大悲の用について」『佛教の實踐原理』山喜房佛書林, 1977

東 武「カマラシ-ラの『修習次第』—その著作をめぐって」『印佛研』14-2, 1966

「カマラシ-ラの教學について」『文化』31-4,1968

「同(續)」『同』32-2, 1968

永見光章「Bhāvanākramaに引用されたSamādhirājaの一偈について」『豊山學報』13 1967

湯山 明 「KamalaśīlaのBhāvanākramaに引用された維摩經」『東方學』38, 1969
一島正眞 「カマラシ-ラの止觀について」『天台學報』23, 1981
「カマラシ-ラの佛身觀」『天台學報』24, 1982
「『大日經』の三句義と菩薩道」『天台學報』26,1984
「『菩提道次第廣論』に與えた『修習次第』の影響〈奢摩多·毘鉢舍那章〉」『天台學報』27, 1985
伊藤教宣 「三句思想についての一考察—『廣釋菩提心論』の三句について」『豊山紀要』9, 1981
「『廣釋菩提心論』の三句について」『豊山紀要』10, 1982
御牧克己 「頓悟と漸悟—カマラシ-ラの『修習次第』」『講座大乘佛教7·中觀思想』春秋社, 1982
Kiyotaka Goshima : The Tibetan Text of the Second Bhāvanākrama, Kyoto,1983
森山清徹 「Kamalaśīlaの唯識思想と修道論 — 瑜伽行中觀派の唯識說の觀察と超越—」『佛教大學人文學論集』19, 1985
淺野守信 「『修習次第』に說かれる2種類の菩提心について」『印佛研』36-2, 1988
松下了宗 「敦煌本修習次第と混成文獻」『印佛研』38-2, 1990

4.3. 中觀光明論

이 저술은 카말라실라 晩年의 저작으로 그 내용의 방대성에서 그의 중관사상을 집대성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성방식은 먼저 前主張(pūrvapakṣa)을 정리하여 제시한 뒤 後主張(uttarapakṣa)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비판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序頭에 「일체법무자성을 증명하기위해 이것을 짓는다」고 설하고 있듯이, 그 내용의 주제는 聖典과 論理에 의해 일체법무자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카말라실라는 그 주제와 관련한 갖가지 문제를 고찰한 뒤 마지막에 一乘(ekayāna)을 선양하며 논을 마치고 있다. 이 저술은 티베트에 있어 쥬냐나가르바의 『이제분별론』, 샨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과 함께 「東方自立家의 3론」으로 간주되고 있다. 에지마 야스노리(江島惠教)에 의해 이 저술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일역〕

小林 守 「カマラシ-ラの離一多論證—『中觀明』試譯(上)—」『論集』13, 1986
「同(下)」『文化』53-1/2, 1989

〔연구〕

江島惠教 「Kamalaśīlaの無自性性論證」『東方學』41, 1971(改稿再錄, 江島『中觀思想の展開』春秋社, 1980)
松本史朗 「Madhyamakālokaの一乘思想——乘思想の研究(I)—」『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14, 1982
Seitetsu Moriyama 「The Yogācāra-mādhyamika Refutation of the Position of the Satyākāra and Alīkākāra-vādins of the Yogācāra School, PartIII」『佛教大學人文學論集』18, 1984
森山清徹 「カマラシ-ラの唯識批判とダルマキ-ルティの經量部說 — 無自性論證の視座:tatsārūpyaとtadutpatti—」『佛教大學研究紀要』72, 1988
「『中觀光明論』と『ロサル宗義書』」『佛教論叢』32, 1988
「『後期中觀派の二諦說とpramāṇa」『印佛研』39-1, 1990
「後期中觀派とダルマキ-ルティ(2)—「空」を巡る論爭:LakṣaṇaśūnyatāとSvabhāvānupalabdhi」『佛教大學研究紀要』74,1990
「Madhyamakālokaの無自性論証と『佛性論』」『印佛研』40-1, 1991
松下了宗 「無自性說と密意趣—中觀光明論に見られる中觀派批判の背景」『佛教學研究』43, 1987
「中觀光明論に見られる無自性說批判—聖教による吟味—」『印佛研』35-2, 1987
小林 守 「『中觀明』における離一多論證について」『印度學宗教學會 論集』12, 1985
「無自性性論證と所依不成(āśrayāsiddha)の問題—カマラシ-ラの『中觀明』を中心として—」『文化』50-3/4, 1987
生井智紹 「Kamalaśīlaの〈一乘思想〉について」『印佛研』38-2, 1990
計良隆世 「Madhyamakālokaにおける不確定因の誤謬回避について」『印佛研』40-1, 1991
「不確定因の誤謬回避における gamya-gamakabhāvaの確立と否

定の問題にっいて」『印佛研』41-1, 1992

4.4. 一切法無自性成就

이 저술은 『중관광명론』과 그 주제 및 다루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며, 분량도 『중관광명론』의 1/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略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저술이 카말라실라가 티베트에 들어오기 전, 인도에서 저술된 것을 비쳐보면 이것이 『중관광명론』의 底本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역〕

森山清徹「カマラシーラのSarvadharmaniḥsvabhāvasiddhiの和譯研究(1)」『佛大院紀要』9, 1981
「同(2)」『同』10,1982
「カマラシーラの無自性論證とダルマキールテイの因果論—Sarvadharmaniḥsvabhāvasiddhi 和譯研究(3)—」『佛大紀要』71,1987
「An Annotated Translation of Kamalaśīla's Sarvadharmaniḥsvabhāvasiddhi, Part IV」『同』69, 1985

〔연구〕

Seitetsu Moriyama「A Synopsis of the Sarvadharmaniḥsvabhāvasiddhi of kamalaśīla(1)」『印佛研』30-2, 1982
森山清徹「KamalaśīlaのSarvadharmaniḥsvabhāvasiddhi(SDNS)解說」『佛教文化研究』33, 1988

4.5. 菩提心修習

이 저술은 나가르주나의 저술이라 일컬어지는 偈文 『菩提心釋』(P.No. 2665:D.No.1800)과 쥬냐나가르바의 『瑜伽修習道』등과 유사한 보리심의 수습을 설하는 작품이다. 하지만 나가르주나의 散文 『보리심석』(P.No. 2666:D.No.1801)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카말라실라가 이 『보리심석』을 입수해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저술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역〕

酒井紫朗「菩提心觀釋と菩提心離相論について」『密教文化』4, 1948

〔연구〕

森山清徹「Kamalaśīlaの唯識思想と修道論—瑜伽行中觀派の唯識說の觀察と超越—」『佛教大學人文學論集』19, 1985
生井智紹「佛道の體系と瑜伽の階悌—〈菩提心修習〉に關聯して」『日本佛教學年報』54, 1989

4.6. 기타

카말라실라의 『入瑜伽修習』에 대한 다음의 연구등도 있다.

生井 衛「西藏文『入瑜伽修習』和譯(I)」『佛教學會報(高野山大學)』創刊號, 1968

5. 하리바드라

5.1. 생애 및 저술

5.1.1. 생애

하리바드라의 생애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다. 하지만 티베트문헌에 의하면 그는 왕족출신으로 후에 출가하여 『般若經』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타라나타 불교사에 의하면 샨타라크시타에게서 중관의 뜻을 배우고, 戒師인 바이로차나바드라로 부터 『반야경』과 『現觀莊嚴論』에 대해 배운뒤 동방의 카샤르파니에서 미륵의 秘法을 성취하던 중 꿈속에서 미륵으로부터 「지금 교의가 일치하지 않은 다수의 반야경 주석이 있는데 어느 것을 따르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반야경』의 주석서를 쓰기로 마음 먹었다

고 한다. 그후 얼마되지않아 다르마팔라(Daramapāla)왕의 초청을 받고, 또 트리카투카 寺院에서 수천명의 청중들 앞에서 반야경에 대해 강의하였는데, 이 강의가 곧 그의 현존하는 주석서라고 한다. 그의 주석서는 산스크리트原本이 남아있고, 아울러 쥬냐나가르바, 샨타라크시타, 카말라실라 등 후기중관파의 저작을 다수 인용하고 있는 까닭에, 후기중관파의 사상에 대한 산스크리트 원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5.1.2. 저 술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술이 있다.

『聖八千頌般若波羅蜜多釋 現觀莊嚴論光明』(Ārya-aṣṭasāhasrikā-prajñāpāramitā-vyākhyā Abhisamayālaṃkārālokā, P.No.5189;D.No.3791)

『般若波羅蜜多教誡 現觀莊嚴論註』(Abhisamayālaṃkāra-nāma-prajñāpā-ramitopadeśa-śāstra-vṛtti, P.No.5191;D.No.3793)

『薄伽梵功德寶集頌細疏』(Bhagavadratnaguṇasaṃcayagāthā-pañjikā, P.No.5190;D.No.3792)

이 중 『薄伽梵功德寶集頌細疏』는 하리바드라의 저작으로서 의문시 되고 있다.

5.2. 聖八千頌般若波羅蜜多釋 現觀莊嚴論光明(大註)

미륵의 저술이라 일컬어지는 『現觀莊嚴論』은 『二萬五千頌般若經』에 대한 주석으로 총272게송, 전체 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리바드라는 이 『현관장엄론』을 주석해가면서 그 科文의 내용에 따라 『八千頌般若經』을 주석하였는데 그것이 곧 이 『大註』이다. 『2만5천송반야경』은 곧 『8천송반야경』이 증광 확대된 것인 까닭에, 이 『대주』는 동시에 『현관장엄론』의 해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대주』는 일찍이 오기하라 운라이(荻原雲來)에 의하여 산스크리트 校訂本이 출간되는 등 문헌적인 기초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비해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은 듯하며 근래들어

다시 연구의 활기를 띄고 있다.

〔산스크리트 교정본〕

Unrai Wogihara:Abhisamayālaṃkārālokā Prajñāpāramitāvyākhyā, The Work of Haribhadra, Tokyo, 1932-35

〔연구〕

荻原雲來「現觀莊嚴論頌」『密教』4-3, 1914
「現觀莊嚴論に就いて」『日本佛教學會年報』1, 1929
「現觀莊嚴論に依準せる八千頌般若波羅蜜多經注解」『大正大學研究紀要』10, 1931

橋本光寶「藏文明解(現觀)莊嚴論の釋」『聖語研究』1, 1933

眞野龍海「ハリバドラの中觀瑜伽說」『宗教研究』131, 1952.
「ハリバドラの境論について」『宗教研究』133, 1952.
「ハリバドラにおける行論」『日本佛教學會年報』30, 1965.

天野宏英「〈現觀莊嚴論釋〉の梵文斷片」『東北佛教文化研究所年報』3, 1962
「ハリバドラの佛身論」『宗教研究』37-4(179), 1964.
「ハリバドラの二諦說」『印佛研』13-2, 1965
「因果論の一資料—ハリバドラの解釋」『金倉博士古稀記念, 印度學佛教學論集』1966
「因果論について—ハリバドラのダルマキルティ批判—」『印佛研』15-2, 1967
「現觀莊嚴論釋の著作問題」『宗教研究』41-3(1964), 1968
「現觀莊嚴論の著作目的について」『印佛研』17-2, 1969

Seitetsu Moriyama:Kamalaśīla's and Haribhadrās refutation of the Satyākāra and Alikāra-vādins of the Yogācāra School, 『印佛研』33-1, 1984

森山淸徹「KamalaśīlaとHaribhadra— 瑜伽行中觀派の學說と系統—」『佛教論叢』 30, 1986
「KamalaśīlaとHaribhadra— —切智者の智の證明を巡って」『印佛研』35-1, 1986

谷口富士夫「『現觀莊嚴論』における種姓の區別」『印佛研』37-2, 1989

5.3. 般若波羅蜜多教誡 現觀莊嚴論註(小註)

이 『小註』는 『大註』의 綱要書적인 저술로서, 『대주』 가운데에 반야경의 주석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그 양에 있어서도 『대주』의 1/6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주』가 게송의 주석을 게송 앞에 놓아 설명하는데 비해, 『소주』는 게송을 앞에 놓고 그것에 대한 주석을 후에 붙이고 있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이 『소주』는 『대주』의 略本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에 『대주』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大註('grel chen)』『小註('grel chun)』란 말은 일반적으로 티베트에서 쓰여지는 명칭이다.

〔일역〕

眞野龍海 「ハリバドラ小註の研究(一)」『佛教論叢』8, 1962
「同(二)」『佛教論叢』9, 1962
「同(三)」『大正大學研究紀要」』52, 1967
「同(四)」『佛教文化研究』14, 1968
『現觀莊嚴論の研究』山喜房佛書林, 1972

*『現觀莊嚴論の研究』의 내용

이 책은 제1부:〔연구〕, 제2부:티베트문 『현관장엄론 소주』和譯·註, 索引, 別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제1장:현관장엄론, 제2장:현관사상의 2부분으로 이루어져 현관장엄론과 관련된 사상 전반을 연구 고찰하고 있다. 특히 제1장의 현관장엄론에서는 주석자인 하리바드라의 사상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또한 別表에서는 『소주』『대주』『대반야경』 셋에 나타난 용어의 대비 즉 티베트어·산스크리트어·일본어의 대조표가 실려있다.

6. 캄발라

6.1. 생애 및 저술

6.1.1. 생애

캄발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않고 있다. 단지 그가 비니타데바와 쥬냐나가르바와 동시대의 인물이라 하는 점과 밀교의 학승이라고하는 점이 알려지고 있다. 티베트 대장경에는 캄발라 또는 Lwa ba po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 중 대부분은 탄트라부에 속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사하자바쥬라(Sahajavajra)가 그의 『十眞實論註疏』에서 이 캄발라의 『明鬘』을 인용해 「無形象中觀論者」로 구분하고 있고, 티베트에서도 이 설을 이어받아 캄발라를 「瑜伽行中觀 形象虛僞派」등으로 구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캄발라는 후기중관파의 일원으로 특히 그의 『九頌』에서는 반야경에 대한 엣센스를 간결히 정리하고 있다.

6.1.2. 저술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술이 있다.

『明鬘』(Ālokamālā, P.No.5866;D.No.3895)
『般若波羅蜜多九頌精義論(九頌)』(Navaśloka, P.No.5210 D.No.3813; T.No.1516 『聖佛母般若波羅蜜多九頌精義論』2권, 勝德赤衣菩薩造, 宋 法護等譯)

6.2. 연구

이 캄발라의 저술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명만』

은 약 280게송, 『구송』은 이름대로 9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번역·연구의 대부분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고, 일본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후기중관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의 문헌등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티베트의 「宗義文獻」에서는 그를 「유가행중관 형상허위파」로 구분하는 까닭에, 이 종의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사상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연구〕

Shōdo KURIHARA 「The Classification of Kambala's School」『印佛研』39-2, 1991.

〔종의문헌〕

K. Mimaki : BLO GSAL GRUB MTHA', Zinbun Kagaku Kenkyusho, 1982

〔참조논문〕

松本史朗 「Ratnākaraśāntiの中觀派批判(下)」『東洋學術研究』19-2, 1980

白崎顯成 「Sugatamatavibhaṅgabhāṣya第四章中觀派の教義和譯」『南都佛教』55, 1986

森山清徹 「後期中觀派と形象眞實論·形象虛僞論-Śākyabuddhi, Prajñākaragupta, Kambala-」『印佛研』41-1, 1992

＊영역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Chr. Lindtner:A Treatise on Buddhist Idealism: Kambala's Ālokamālā, *Miscellanea Buddhica*, Indiske studier V, Copenhagen, 1985

G.Tucci:*Minor Buddhist Texts*, Part I. Roma, 1956.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6)(Section Ⅲ, Navaślokī of Kambalapāda)

7. 지타리

7.1. 생애 및 저술

7.1.1. 생애

지타리는 제타리(Jetari)라고도 불리며, 비크라마실라 寺院의 학승으로 아티샤의 스승이었다고도 전해진다. 타라나타 불교사에 의하면 동인도의 작은 나라 왕비와 바라문의 아들로 젊어서 문수보살에게 가르침을 듣는등 일체의 학문에 통하였지만, 후에 不動尊에 대해 不信을 일으켜 그 죄를 멸하기위해 대승의 논서를 다수 쓰도록 타라여신으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그 후 비크라마실라의 학승이되어 샨티데바의 『大乘集菩薩學論』『入菩提行論』등에 주석을 썼다고 한다. 이 지타리에 대해서는 하리바드라와 동시대의 지타리와 아티샤의 스승으로서의 지타리 2사람이 시대적으로 차이를 보여 지타리 2인설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그의 저술 가운데 어느 것이 각각의 지타리에 속하는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서는 일단 1인의 지타리를 상정하여 논술하지만, 그럴 경우 지타리는 대체로 10세기후반에서 11세기 초에 걸쳐 활약한 인물이 되리라 생각한다.

7.1.2. 저술

이 지타리에게는 중관관계의 저술 4편, 인식론·논리학 관계 16편, 밀교관계 18편 그외 2편 등모두 40여편에 달하는 저술들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교 4학파의 교의를 해설한 다음의 것이다.

『善逝宗義分別論』(Sugatamatavibhaṅga,P.No.5461,5867;D.No.3899, 4547)

『善逝宗義分別論疏』(Sugatamatavibhaṅga-bhāṣya,P.No.5868;D.No. 3900)

이 외에 그의 저술로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初學地修觀』(Ādikarmikabhūmipariṣkāra,P.No.5341,5407;D.No. 3945, 4494)
『菩提心生起受持儀軌』(Bodhicittotpādasamādānavidhi,P.No.5363, 5406;D.No.3968,4493)
『心寶清淨次第書簡』(Cittaratnaviśodhanakrama-nāma-lekha,P.No. 5408,5685;D.No.4185,4495)
『因實義教誡論』(Hetutattvopadeśa, S.有; P.No.5758;D.No.4261)
『幼童入門思擇論』(Bālāvatāratarka, P.5760;D.No.4263)
『類否定論』(Jātinirākṛti, S.有)
『不決定論捨離論』(Anekāntavādanirāsa, S.有)

이 지타리의 저술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시라사키 겐조(白崎顯成)에 의해 거의 독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의해 지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해명되었다고 생각된다.

7.2. 善逝宗義分別論

이 저술은 불교4대학파의 중심적 교리를 해설한 작품으로, 샨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이는 작품이다. 지타리도 역시 有部, 經量部, 唯識派를 차례로 비판하며, 자신의 교의가 중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문헌에 의거해 티베트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세속의 입장에서 「形象虛僞有垢論者」로 구분되고 있지만, 그가 「形象眞實論者」라고 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 저술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 교정본〕

Kenjo Shirasaki:The Sugatamatavibaṅgabhāṣya of Jitāri(I)『神戶女子大學紀要(文學部扁)』17-1(第二經量部, 第三唯識派章), 1984;
同(II)『同』18-1(第四中觀派章), 1985
同(III)『同』19-1(第一毘婆沙師章), 1986
同(IV)『同』20-1(第一毘婆沙師章續き), 1987

〔일역〕

白崎顯成 「Sugatamatavibaṅgabhāṣya第二章Sautrāntika章和譯」『佛教論叢』21, 1977
「善逝本宗分別疏和譯(一)」『佛教論叢』27,1983(第二經量部章と第三唯識派章〈未完〉和譯)
「JitāriのSugatamatavibhaṅgabhāṣya和譯(2)」『密教文化』143,1983(第三唯識派章(續き)和譯)
「Sugatamatavibhaṅgabhāṣya第四章中觀派の教義和譯」『南都佛教』55, 1986

〔연구〕

白崎顯成 「JitāriとMokṣākaragupta」『印佛研』25-1, 1976
「JitāriとMokṣākaraguptaとVidyākaraśānti」『印佛研』26-1, 1977
「JitāriとDurvekamiśra」『佛教論叢』22, 1978
「JITĀRI AND ŚĀNTARAKṢITA」『印佛研』27-1, 1978
「JitāriとNāgārjuna」『印佛研』28-1, 1979
「Jitāri—人と思想—」『木村武夫教授古稀記念·僧傳の研究』永田文昌堂, 1981
「Jitāriの再認識批判」『印佛研』33-1,1984
S.Matsumoto:On the Philosophical positions of Dharmottara and Jitāri,『印佛研』29-2, 1981

7.3. 初學地修觀

이 저술은 초학지의 보살이 수관해야 할 덕목과 공덕을 설한 작품이다. 티베트역만이 있다.

〔연구〕

白崎顯成 「Jitāriの菩提過犯懺悔註菩薩學次第(Bodyāpattideśanāvṛttibodhisattvaśākrama)研究」『神戸女子大學(文學部)紀要』21-1, 1988
「同(2)」『神戸女子大學(文學部)紀要』22-1, 1989

7.4. 菩提心生起受持儀軌

이 저술은 밀교적 성향이 짙은 發菩提心과 誓願受持에 관한 의궤로서, 『初學地修觀』과 같은 소품의 저술이다. 전체의 1/3정도가 샨티데바의 『入菩提行論』에서 인용되어 있으며, 티베트에서는 보살의 律儀에 관한 문제에 있어 『입보리행론』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역〕

白崎顯成 「JitāriのBodhicittotpādasamādānavidhi研究(1)」『神戸女子大學(文學部)紀要』23-1, 1990
「同(2)」『神戸女子大學(教育諸學研究論文集)』4, 1990

〔연구〕

白崎顯成 「JitāriとŚāntidevaとPrabhākarakīrti」『印佛研』29-2, 1981
「JitāriのBodhicittotpādasamādānavidhi-「七支清淨行」を中心にして-」『印佛研』38-1, 1989

7.5. 心寶淸淨次第書簡

이것은 서간문의 일종으로 지타리가 국왕에게 보낸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은 소위 「5停心觀」을 주제로 한 수도론을 설하고 있다.

〔연구〕

白崎顯成 「Cittaratnaviśodhanakramalekha—國王にあてたJitāriの手紙」『日本佛教學會年報』45, 1980

8. 아티샤

8.1. 생애 및 저술

8.1.1. 생애*

정식 이름은 디팡카라슈리쥬냐나(Dīpaṃkaraśrījñāna)로서 인도불교말기의 대학자로서 비크라마실라 사원의 學頭로 이름이 높았고, 후에 티베트에 들어가 티베트불교의 부흥에 공헌해 티베트 불교의 後傳期의 초석을 닦았다. 그는 벵갈지방 자호르국의 왕자로 출생해, 어려서 타라여신의 모습을 보고 그 감화에 의해 왕위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다. 그후 灌頂을 받고 탄트라의 가르침을 듣는등 각종 학문을 익혔지만, 꿈속에서 석가모니불의 권고를 받고, 29세때 대중부의 실라라크시타로 부터 구족계를 받는다. 그 후 三藏을 배우고, 특히 오단타푸리 사원에서는 다르마라크시타로부터 『大毘婆沙論』을 들었다. 그의 스승으로는 지타리, 나로파, 보디바드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학문은 비크라마실라의 大長老로서 크게 명성을 얻어, 마침내 서티베트의 가리국왕으로 부터 초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1040년 인도를 떠나 1042년 서티베트의 토딘에 도착, 거기에서 유명한 역경승 린첸상포(Rin chen bzang po)를 만나고, 또 가리왕의 요청으로 『菩提道燈論』을 저술했다. 이후 티베트에서 다수의 불전을 번역하고, 1054년 라사 근처의 네단에서 최후를 맞았다. 그의 사상은 그의 제자 돔톤등으로 이어져 후의 카담파(Bka' gdams pa)로서 전개해 가게 된다. 아티샤가 티베트불교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며, 그가 죽은 이후의 티베트 불교전개를 티베트 불교 후전기(phyi dar)라 부를 정도로 그의 역할은 중요시되고 있다.

* 아티샤에 대해서는 하다노 하쿠유(羽田野 伯猷)에 의한 연구가 세밀하다. 羽田野 伯猷『チベット·インド學集成 제3권』(法藏館, 1987)에 실린 논문.

(1) 密教者としてのアティーシャ (2) 菩提心法者としてのアティーシャ
(3) 衛へのアティーシャ招請 (4) アティーシャおぼえ書

그 외에 중요한 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芳村修基「アティシャ教學の歷史的位置」『佛教史學』2, 1950
矢崎正見「アティシャの入藏と其の功罪」『大崎學報』101, 1954
稻葉正就「チベット中世初期における般若中觀論書の譯出」(上)『佛教學セミナー』4, 1966

8.1.2. 저술

그는 티베트 대장경에 26부에 달하는 저술을 남기고 있지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菩提道燈論』(Bodhipathapradīpa,P.No.5343,5378;D.No.3947,4465)
『菩提道燈論細疏』(Bodhipathapradīpa-pañjikā,P.No.5344;D.No.3948)
『入二諦論』(Satyadvayāvatāra, P.No.5380;D.No.3902,4467)
『中觀教誡論』(Madhyamakopadeśa,P.No.5324,5326,5381;D.No.3929, 4468)
『歸依說示』(Saraṇagamana-deśanā,P.No.5350,5391;D.No.3953,4478)

8.2. 菩提道燈論

아티샤가 가리(mNga' ris) 지방에서 장춥외(Byang chub 'od)의 요청에 의해 저술한 것으로, 모두 276게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보리도등』이 너무 간결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細疏』를 지었다고 한다. 그 중심내용은 불교의 어떠한 것도 버릴 것없이 성문독각승·바라밀승·진언승이 모두 수행의 道로서 순차적〔道次第〕으로 파악되어져야 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次第로서의 수행은 후기중관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 아티샤의 저술은 특히 후대에 큰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저술은 특히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다수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티베트교정본〕
Shyuki Yoshimura:Tibetan Buddhistology, Texts, Vol.II, Kyoto, 1951

〔연구〕
羽田野伯猷「チベットにおける佛教觀の形成について—菩提道燈·サンプ佛教學·カーダム寶冊等をめぐって」『文化』29-2, 1965
立花孝全「Atisaにおける大悲および淨戒」『印佛研』16-2,1968
小玉大圓「チベットにおける戒律の傳統について—序說—」『佛教大學研究紀要』53, 1969
江島惠教「Atiśaの無自性性論證」『印佛研』19-1, 1970
遠藤祐純「Atiśaその世界—戒律を中心として—」『勝又俊教博士古稀記念論集, 大乘佛教から密教へ』春秋社, 1981
矢崎正見「アティーシャにおける佛道の體系」『日本佛教學會年報』54, 1989

*불어·독어·영어에 의한 각각 다음의 번역이 있다.
José Van den Broeck:*Le flambeau sur le chemin de l'Éveil (Bodhipathapradipa)*, Publications de l'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Bouddhiques, Série "Etudes et textes", N° 5, Bruxelles, 1976.
Helmut Eimer:*Bodhipathapradīpa, Ein Lehrgedicht des Atiśa (Dīpaṃkaraśrījñāna) in der tibetischen Überlieferung*, Asiatische Forschung, Band 59, Wiesbanden, 1978
S.J.Richard Sherburne:*A Lamp for the Path and Commentary of Atiśa*, The Wisdom of Tibet Series, 5, London, 1983
Losang Norbu Shastri:*Bodhipathapradīpa of Ācārya Dīpaṅkara Śrījñāna*, Bibliotheca Indo-Tibetica Ⅶ, Sarnath, 1984

8.3. 入二諦論

이 저술은 二諦를 주제로 한 30게송 정도의 소품으로, 그 내용에 있어 바비야—『般若燈論』등의 저자인 바바비베카와 다른사람—의 『中觀寶燈論』과 유사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아티샤는 일반적으로 티베트에서는 찬

드라키르티류의 歸謬論證派를 받드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는 바바비베카의 『中觀心頌』『思擇炎』등도 번역해 티베트에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아티샤는 바바비베카류의 논리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의 저술에서도 바바비베카의 영향은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 아티샤는 찬드라키르티의 견해를 主勝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총카파는 말하고 있다.
長尾雅人『西藏佛教研究』岩波書店, 1954, p.111참조

〔연구〕
江島惠教「アティシャの二眞理說」『龍樹教學』1983

8.4. 기타

아티샤의 『歸依說示』에 대해 최근 다음의 번역이 발표되었다.

望月海慧「『歸依の說示』試譯」『佛教學論集』19, 1990

9. 기 타

9.1. 슈리굽타

9.1.1. 생애

슈리굽타는 『入眞實論註』라는 저술을 남겨, 그 가운데에서 「離一多性」을 證因으로 일체법무자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샨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따라서 후기중관파에 있어 획기적인 논증법인 「離一多性의 증인을 통한 무자성논증」에 관한 역사적 우선권에 대해 다수의 논란이 생겨났다. 특히 티베트의 전승에서는 슈리굽타가 샨타라크시타의 스승인 쥬냐나가르바의 스승으로 인정되어지는 까닭에, 슈리

굽타→쥬냐나가르바→샨타라크시타로 역사적인 서술이 가능하게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슈리굽타의 생애에 대하여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지금, 슈리굽타가 「離一多性의 논증법」을 샨타라크시타에 우선해 제창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시 되어진다. 슈리굽타에게는 『입진실론주』 이외에 다른 저술이 없는 까닭에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슈리굽타는 샨타라크시타의 아류로 간주되고 있다.

9.1.2. 저술

『入眞實論註』(Tattvāvatāravṛtti, P.No.5292;D.No.3892)

이 저술은 본래 30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본송에 스스로 주를 단 것으로, 다음의 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연구〕
江島惠教「「離一多性」による無自性論證」『宗教研究』220, 1974
松本史朗「Jñānagarbhaの二諦說」『佛教學』5, 1978

9.2. 이상 거론한 인물의 저술외에 티베트 대장경 중관부에 속하는 것으로서 후기 중관파와 관련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 Nāgamitra作 『三身入門論』(Kāyatrayāvatāramukha-nāma-śāstra P.No.5290;D.No.3890)
(1-2) Jñānacandra作 『三身註』(Kāyatraya-vṛtti P.No.5291;D.No.3891)

〔연구〕
浜野哲敬「『三身入門論』について」『印佛研』32-2, 1984
「『金光明經·三身分別品』」『印佛研』33-2, 1985
緒方正親「三身說について-『三身入門論』からみた自他利益との開連において-」『宗教研究』66-4(295), 1993

(2) Buddhajñānapāda作 『大乘相集論』(Mahāyānalakṣaṇasamuccaya P.No.5301;D.No.3905, 〔한역〕集大乘相論』2권, 覺吉祥智菩薩造,

宋 施護譯, 大正 No.1637)

(3) Aśvaghoṣa作『世俗菩提心修習優波提舍書』(Saṃvṛti-bodhicitta-bhāvanopadeśa-varṇa-saṃgraha P.No.5307, 5432;D. No.3911, 4519)
『勝義菩提心修習次第書』(Paramārtha-bodhicitta-bhāvanakramavarṇa-saṃgraha P.No.5308, 5431;D. No.3912, 4518)

〔일역〕
寺本婉雅「西藏文馬鳴菩薩書眞俗二諦觀」『佛教史學』2-5,1912
酒井眞典「馬鳴論師の二種菩提心論」『金倉博士古稀記念 印度學佛教學論集』平樂寺書店, 1966

〔연구〕
小林 守「如幻中觀·無住中觀 一典據—dPa′ bo 作『勝義菩提心修習論』」『印佛研』39-2,1991

〔티베트 택스트〕
小林 守「Ācārya dPa′ bo作『勝義菩提心修習次第書』藏譯テキスト」『東北大學印度學講座六十五周年記念論集·インド思想における人間觀』平樂寺書店, 1992

또 다음의 저술도 티베트본 외에 산스크리트본이 남아있고, 후기중관파와 관련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Āryaśūra作『波羅蜜多集』(Pāramitāsamāsa P.No.5340;D.No.3944)
(2) Śūra(dPa′ bo)『善說寶篋譚』(Subhāṣitaratnakaraṇḍakakathā P.No. 5668, 5424;D.No.4168, 4511)
(3) Aśvaghoṣa作『十不善業道說示』(Daśākuśalakarmapathanirdeśa P. No.5678, 5416;D.No.4178, 4503)
(4) Dhārmika Subhūtighoṣa作『正法念處頌』(Saddharmasmṛtyupasthānakārikā P.No.5415, 5679;D.No.4179, 4502)

10. 結 語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후기중관파와 관련한 일본에서의 연구이지만, 각 절에서 보았듯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후기중관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후기중관파 대부분의 典籍이 티베트어로 남아있는 까닭에, 후기중관파의 연구에는 티베트어에 대한 지식 뿐만아니라 티베트 불교 일반에 대한 지식도 필요로 되어진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출간된 티베트 불교에 대한 다음의 특집호 2권은 일본학계에 있어 티베트 불교학의 수준을 보이는 중요한 책이라 생각된다. 그 2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집 티베트불교(『東洋學術研究』21-2, (財)東洋哲學研究所, 1982)
티베트 불교사 略說(山口瑞鳳)
敦煌資料와 初期 티베트 불교연구(上山大峻)
吐蕃王國 譯經史(原田 覺)
삼에의 宗論에 관한 諸問題(沖本克己)
古代 티베트에 있어서 禪思想의 흐름(木村隆德)
카담派의 典籍과 敎義(山口瑞鳳)
닝마派의 敎法(平松敏雄)
카규派의 典籍과 敎義(立川武藏)
티베트 密敎의 一斷面(R. 기불)
티베트에 있어서 아비달마佛敎의 특색(池田練太郎)
티베트에 있어서 唯識思想研究의 문제(袴谷憲昭)
티베트의 中觀思想(松本史朗)
티베트에 있어서 宗義文獻(學說綱要書)의 문제(御牧克己)
티베트에 있어서 論理學研究의 문제(小野田俊藏)

(2) 티베트 불교(岩波講座 東洋思想 제2권, 岩波書店, 1989)
Ⅰ.티베트 불교사상사
1.티베트불교 槪觀 — 長尾雅人

2.티베트불교 思想史 — 山口瑞鳳
Ⅱ.티베트불교사상의 展開
1.티베트에 있어서 인도불교의 繼承 — 袴谷憲昭
2.사캬派 — 立川武藏
3.카규派 — 立川武藏
4.초난派와 如來藏思想 — 袴谷憲昭
5.시체派 — 西岡祖秀
6.총카파와 게룩派 — 松本史朗
7.닝마派와 中國禪 — 平松敏雄
8.티베트의 密敎 — 賴富本宏
Ⅲ.티베트 불교사상의 特質
1.티베트 대장경의 編輯과 開版 — 今枝由郎
2.티베트의 學問寺 — 小野田俊藏
3.敦煌 — 중국문화와의 接點 — 上山大峻

이 2권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티베트 불교 일반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지만, 티베트 불교이외에도 역사, 문화, 정치등 각각의 방면을 다룬 저술은 매우 많다. 특히 근년에 출간된 야마구치 즈이호(山口瑞鳳)의 『티베트(上·下)』(東京大學出版會,1987·1988)의 2권은 티베트학 일반에 대한 지식을 거의 전부 해소시켜줄 수 있는 勞作이라 생각된다.*

인도의 후기중관파 연구는 그 역사적 정황으로 인해 티베트 불교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티베트에 있어 불교의 位相으로 인해 티베트학 일반으로 까지 그 관련성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에 의해 후기중관파의 이해에 티베트학 일반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어 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후기중관파 자체에 대해서도 앞서 연구에서 보았듯 다수의 문헌이 미연구인채로 남아있으며, 더욱이 유가행·불교논리학 등 중요한 대승불교사상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티베트 문헌이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인도 대승불교 전반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한역문헌에 남아있지 않은 다수의 전적이 티베트 대장경에 수록되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티베트 문헌에 의한 불교학 연구는 더욱더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라는 테마의 本書에 집필자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일본에 있어 후기중관파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중에 있음을 結語로서 지적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티베트』(상·하) 의 내용 구성〔()안은 각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권〉 제1장:여행자의 눈으로 부터
(가톨릭 수도사의 보고, 이단의 환상을 찾아서, 라마들의 종교, 티베트학의 탄생, 入藏한 일본인, 동란의 뒤)
제2장:티베트의 문화
(일부다처, 장례, 활불, 역법, 점, 의학, 행정기구, 법률, 언어, 전설, 문학, 예능, 연중행사, 조형미술)
〈하권〉 제3장:티베트의 역사
(야르릉 왕가의 흥기, 토번왕국, 씨족교단, 달라이라마 정권, 淸·英·露의 간섭)
제4장:티베트의 종교
(본교, 민간신앙, 불교의 수용, 불교의 再興, 개혁파의 불교, 대장경, 사원, 승원의 생활)
부록으로 티베트학 일반에 대한 참고문헌과 연표, 인명색인등이 실려있다.

** 티베트 대장경에 관한 서지학적인 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拙稿「티베트大藏經의 書誌學的 考察」『古書硏究』11, 1995·7

〈※본 논문에 사용된 略號表記는 『梵佛論』의 略號表를 따랐다.〉